

본란은 독자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마련한 장입니다. 세미나, 강좌, 강연회 등의 일정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독자의 참여 기회를 극대화시키고 신기술, 신제품, 신간 등을 소개하여 실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의 월간 「건축세계」에서는 좋은 책 만들기의 일환으로 <독자관>을 구성, 과월호에 대한 의견과 건축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독자의 참여가 올바른 건축 언론 정립의 바탕임을 인식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 박혜숙 記筆)

## 건축마당

2004 원고지 3~4매 분량으로 우편, 팩스, 전화,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과월호와 건축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야 한하여 다음 호를 보내드립니다.

TEL : (02)422-7392(대) | FAX : (02)422-7396, 9 | E-mail : aid@archiworld-pa.com

### ● 소식

####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출품작가 선정

문예진흥원은 오는 9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막하는 제 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한국관에 참가작가로 건축가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씨 등 3명을 선정·발표했다. 한국관 커미셔너 정기용씨는 "건축가의 완성품을 전시하는 기존의 전시방법을 탈피, 참여작가들이 공동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건축 현상에 대한 분석·해석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빙의 도시'라는 주제로 노라방, 비디오방, 필질방과 온라인상의 방까지 온갖 방이 생겨나고 일상으로 퍼지는 우리네의 문화적 상향을 공동작업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스위스출신의 건축학자 커트 포스터가 총연출을 맡은 올 베니스건축비엔날레는 'Metamorphoses'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린다.

#### UIA공모전 우리나라 학생작 우수상 당선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주최한 제 1회 UIA국제공모전 제 4지역(아시아, 오세아니아) 학생 부문에서 동아대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신지원(25), 김동희(23), 이두호(25)씨의 공동 작품 '부영시장의 일상축제'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부산의 재래시장인 부영시장의 환경 개선을 모색한 것이다. '도시 환경'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건축가 부문과 학생 부문에서 지역 예선을 거친 세계 29개국 작품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2005년 7월 터키이스탄불에서 거행되는 UIA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賞 이라크 여성 건축가 히디드

- 이라크 여성 건축가 히디드



지난 3월 23일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의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53)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의 세계적인 호텔체인 하얏트 재단이 제정한 프리츠커상을 여성건축가가 받기는 지난 1979년 여성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프리츠커상 심사위원인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하디드는 지금까지 이

상을 받은 가장 젊은 건축가이자 지난 수년간 가장 뚜렷한 건축학적 궤적을 가진 인물 중 하나"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영국으로 귀화한 하디드는 기존의 관습적 틀을 깨는 해체주 건축스타일로 유명하며, 독일 뉘른베르크의 미디어센터와 영국 카디프의 오페라 하우스 등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설계했다. 프리츠커 건축상은 루브르 박물관 유리피라미드를 설계한 J.M.페이, 네덜란드의 저명한 건축가 렘 쿨하스 등이 수상한 건축계의 최고 권위상이다. 하디드에 대한 수상식은 오는 5월 31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국가 유물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 24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제 9회 비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참가작가 선정 및 한국관 커미셔너의 전시 기획안을 발표했다. 한국관 커미셔너로 최종 결정된 김기웅(이하 '김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작가 및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작가선정의 최종 판단 기준은 공동작업 가능성, 기존 작업의 주제 부합성 등으로 두 차례 워크숍을 통한 토론과 검토 끝에 김광

수(이하 '김수') 교수, 송재호(이하 '송씨') 교수, 유석연(이하 '유씨') 교수 세 명을 최종 참여 작가로 선정했다. 이 세 명의 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와 정주공간, 온라인 공간에 대한 개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1, 2차 후보에 오른 14명 가운데 비교적 개성이 강한 서혜림(이하 '서씨'), 조장구(이하 '조씨'), 조병수(이하 '조씨'), 황두진(이하 '황씨') 씨는 주제관에 추천하고 한국관 작가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은 '변용 Metamorphosis'이라는 대주제 아래, '빙의 도시 City of the Ice'를 테마로 미래의 도시·건축의 가능성을 전서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한국 도시에서 '빙'은 상업주의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복합적 사회문화 현상이다. 활동과 언어의 융합성, 초고밀 도시와 빈약한 공공공간, 복합적 인터넷 사용이 만들어 내는 빙은 중요한 일상 공간이다. '빙의 도시'는 건축가의 완성된 작품을 전

시하는 기존의 전시방법을 탈피하고 3인의 젊은 건축가가 12차례 워크숍을 통해 공동으로 빙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가 직면한 도시건축의 문제와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시는 도시 속의 빙을 분류하여 제보를 만드는 작업과 미술 변형, 재구성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전통적인 '빙'에서 체할하지 못한 것들과 대면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내부는 감동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험을 유발시킨다. 빙이 공간이 되고, 빙 속에 세계가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빙에 대한 의미의 전환점을 찾고, 미래의 새로운 '빙'으로 침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9회 비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커트 포스트(Kurt Postor) 씨를 총디렉터로 하여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탈리아 비니스의 카스텔로 공원(Castello Garden)과 아르세날레(Arsenale)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양대학교

#### 2004 국제 건축스튜디오 강연회



건축교육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위한 국제 건축스튜디오 강연회가 지난 3월 16일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는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의 대학과 함께 2002년부터 국제 스튜디오를 추진해 왔다.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2004워크숍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4개국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참여 대학은 한양대를 비롯, 프랑스의 파리 라빌레트 건축대학교(Peak La Villette), 중국 칭화대학교(Qinghua), 이탈리아의 밀라노 공과대학교(Politecnico di Milano)와 웨데리코대학교(Universita Federico II Napoli)의 5개 학교로 2002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2003년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워크숍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 유병근(이하 '유씨') 교수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번 강연회는 모두 각 나라 언어로 진행되었다. 첫 강연은 여러 주보스크(Bis Dubius) 강연인 2004교수기 '건축의 테크놀로지 Architecture as Technology'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프랑스의 실공주거, 공동주거 등의 다양한 학우

장 건축과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든 대형 구조물의 구조, 설비, 외피를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건축의 최신 기술에 접근하고자 했다.

다음은 리 테택임(Li Teetokim) 교수가 '생태 건축의 기원 L'explication de la conception de l'architecture écologique'을 발표했다. 서석지 지도(Seokji지도)와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활용하여 건축에 있어 생태적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현대의 복잡한 기술을 인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다루기 위한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리사이클링(recycling), 설비의 활성(active being activ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청화대 건축과 건물물 예로들어 엑스테리아와 인테리아, 에너지 절약시스템, 구조 및 설비 시스템을 설명하고 청화대 생태건축 공작실에서 작업한 판넬들을 소개했다.

점심식사 후 오후 열정은 밀라노 공대 베방의 교수가 네 가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열정에 차질이 생겨 밀라노공대 두 교수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건축의 산업화 the industrialization of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강연한 마르코 임페라도리(Marco Impedadori) 교수는 하이테크와 리이트테크의 비교(high-tech vs light-tech)를 토대로 흥미롭고 풍부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강연을 진행했다. 구연하인 뮤지엄(Museo Guggenheim Museum)과 마르티모 뮤지엄(Museo Martini)의 구조시스템과 물성, 창상세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건축되었을까? how can i build it?'를 설명해주는 대옥은 비교적 흥미로웠다. 같은 학교의 가브리엘 마세로(Gabriele Masero) 교수는 '지속가능한 건물로의 접근 + 설비의

통합 sustainable approach to buildings/installation integration'

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건축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사용자가 인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문제로 내세워 주거, 오피스, 박물관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주거는 실용하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으로 신선한 공기를 재생시킬 수 있어야 하고, 오피스는 그린 빌딩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빈켈 박물관(Museum of Modern Art)과 폼피우 센터(Centro Pompidou)를 통해 덕트에서의 효율적인 공기의 흐름과 건물 내부로의 빛의 유입을 설명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세계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한동수(이하 '한씨') 교수가 '역사도시 서울의 공간구조 space structure of Seoul'라는 주제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자연적·지리적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의 전통주거, 절, 서원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건축이 놓여지는 입지적 여건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유병근 교수가 이번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대지의 역사성과 위치성을 설명하고 짧게나마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며 해 열릴 예정인 국제스튜디오의 대주제가 '환경, 생태적 건축'이기에 이번 강연 주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 이번 설계 주제가 '도시 속 과거와 현재의 전위공간으로서의 현대미술관'이라,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선보인 강연도 포함되어 비교적 성공적인 강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개 대학 학생들은 이번 강연을 토대로 한 학기동안 설계를 완성 시킨 후, 올해 9월경에 프랑스 파리에 모여 공개 심사를 거쳐 시상 및 전시회를 가진다.